

A Study on Universal Design Applicability of Rooms in Accommodation Facilities

- Through the survey of awareness and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room status

숙박시설의 객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능성 연구

- 인식조사와 객실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Ryu, Sang-Oh* 류상오 | Kim, In-Soon** 김인순 | An, Sung-Joon*** 안성준

Abstract

Purpose: Recently accommodations are required to apply universal designs to all the types of rooms in order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everyone. Especially universal design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methods to help disabled users utilizing accommodations with minimizing difficulties. The current research attempted to apply universal designs to ordinary rooms for promoting usage of rooms in accommodations. **Methods:** The field study were executed about all the types of rooms and shared spaces in 42 accommodations in 14 cities, Also, the managers working in the studied accommodations were asked to answer the online survey about awareness in universal design. **Results:** In many cases, ordinary rooms are partially renovated for the disabled with adding some convenient facilities. This raises negative recognition for the rooms specially designed for the disabled as well as absence of needs for universal designed rooms. Meanwhile, universal designed rooms have been required not only for the ordinary but also for the disabled. **Implications:** Regarding adopting universal design to rooms in accommodations, it should be reviewed throughout all the processes from designing to planning.

Keywords Universal Design, Barrier-Free, Accommodation facilities, Room, Plan, Improvement

주 제 어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숙박시설, 객실, 계획, 개선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장애인에게도 그동안의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상생활에서 큰 영역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매년 국내 여행 참가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여행 인구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의 이용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3년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선언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의 실천을 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여행 현실은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Free)'조성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정책이 구체화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의 여행관련 정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이하, 장애인객실) 규정에서, 전체 객실 수의 0.5%로 규정되어 있는 정도에 그쳐, 장애인객실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특히, 휠체어사용자)의 숙박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로는 숙박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연구(Kim, 2004), 휴양시

* Member, Manager, Ph.D, Department of Universal Design Environment,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Primary author: ryu79@koddi.or.kr)

** Member, Department Manager, Ph.D, Department of Universal Design Environment,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kyiis2002@koddi.or.kr)

*** Member, UD Chief, Ph.D, Department of Universal Design Environment,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aokm98@koddi.or.kr)

설 객실 계획방향(Sung, 2010)에 대한 연구가 있는 정도에 그쳐, 숙박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객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등의 객실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반 객실의 이용자 범위도 함께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일반객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Methods of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인식조사와 실태조사에 의한 연구·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과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에 대한 인식조사,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의 공간적 특성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일반객실을 누구든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Background /Purpose	장애인들의 숙박시설 이용 활성화
Interview /Questionnai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객실 이용 현황 및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숙박시설 객실 담당자 등 42명 / 내용: 장애인의 객실 이용 현황 및 주 이용자, 서비스 현황 등 - 이용자: 비장애인 대상 52명 (숙박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20,30,40,50대) /내용: 장애인객실의 인지유무,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의 차이점 및 장단점, 개선사항 등
Actual Situation /Inves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공간과 객실(장애인객실, 일반객실)의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전국 14개 시도 42개 숙박시설 - 조사항목: 공용공간(접근로, 공용화장실 등), 장애인객실 및 일반객실 현황조사
Conclusion	일반객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능성 제시

[Figure 1] Study Flowchart

조사대상시설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시설 등록현황(2014년 기준)을 기준으로 업종 분류·지역 등에 따라 실태현황을 분석하여, 전국 1,293개소 등록시설 중 14개시·도에서 조사 협조에 응한 42개 시설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에 대해 2016.8.11.~2016.9.30.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용공간(접근로, 공용화장실 등), 장애인객실, 일반객실(가능

1) 객실이 30개 이상인 시설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객실 설치 의무인 시설)

한 한 장애인객실과 동일한 사양의 객실)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한다. 동시에 숙박시설 관리자에 대한 장애인객실 이용 실태와 장애인객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다. 또한, 숙박시설 및 장애인객실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 경험자(비장애인)를 대상으로 인터넷설문조사(Surveymonkey)를 진행하였다.

2. Universal design and Accommodations

2.1 Universal design and Accessibility

유니버설디자인 개념²⁾이 적용된 모든 건물, 웹사이트, 서비스 등은 반드시 접근가능 하여야 한다. 이때 접근성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합을 촉진하는 방식이 해결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동등한 사회참여 및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성의 개념에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the same opportunity for all)'와 같은 원칙을 더한다.³⁾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제품을 만들거나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비장애인들에게 예기치 않은 혜택이 돌아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전환하면 일차적으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지만, 노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보행도 더욱 편리해진다. 본래 휠체어 사용자들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경사로도 지금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 카트를 끄는 점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공항과 식당 내 TV 모니터에 자막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TV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은 특정 집단만의 의견이 수렴된 접근, 해결과정이 아닌,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평등 및 포용성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2 Universal design Rooms

1) About Universal design(UD) Rooms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및 침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회전반경을 기본으로 하여,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객실 입구의 유효폭과 단차, 객실내 침실의 침대 측면공간과 전면공간의 회전반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침대의 높이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밖에 객실내 화장실 및 욕실과, 피난 및 안내에 관한 규정에 맞는 객실을 설치하여, 이용시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Table 1).

2)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며, 장애의 유무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체형의 차이, 신체기능이나 이해력의 차이 등에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

3)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기획특집(<http://eletter.mrrfund.kr>): 유니버설디자인-모두에게 보다 더 접근가능한 세상을 위하여(1)

본고에서도 공간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휠체어사용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Table 1] Legal requirements in rooms (unit: : mm)

공간	세부	기준	공간	세부	기준
복도	복도폭	1200이상	화장실 및 욕실	입구단차	20이하
현관	문턱	20이하		문유효폭	800이상
	단차	20이하	회전공간	1400×1400 이상	
	문유효폭	800이상	침실	침대전면· 측면공간	1200이상
	유효폭	1200이상		침대높이	400~450

2) Current situation of UD Rooms

42개 조사대상 시설 중 실제 장애인객실을 보유한 시설을 39개 시설이었으며, 장애인객실의 수가 1실인 29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 중 74.4%에 해당하였다. 장애인객실 비율로 보면 1%이하가 35.7%(15/42), 1%초과 2%이하가 31.0%(13/42), 2%초과 3%이하가 24.4%(9/42), 3%초과가 4.8%(2/42)로 나타났다.

[Table 2] List of Investigation Facilities

	A	B	C	D	규모		G	H	I	J
					E	F				
1	H1	서울	TH	-	13	1	51	1	2.0	2
2	H2	서울	TH	3등급	11	3	46	1	2.2	2
3	H3	서울	TH	-	20	6	204	2	1.0	3
4	H4	서울	TH	3등급	8	1	30	1	3.3	3
5	H5	경기	TH	-	12	1	100	1	1.0	5
6	H6	경기	TH	-	8	2	40	1	2.5	2
7	H7	인천	TH	2등급	7	1	42	1	2.4	2
8	H8	인천	TH	특2등급	10	0	139	1	0.7	9
9	H9	울산	TH	특1등급	24	3	200	2	1.0	2
10	H10	울산	TH	2등급	10	2	57	1	1.8	2
11	H11	경북	TH	1등급	4	1	60	1	1.7	1
12	H12	경북	RH	-	6	2	122	1	0.8	1
13	H13	대구	TH	특2등급	9	2	51	1	2.0	5
14	H14	대구	TH	특1등급	6	1	135	1	0.7	6
15	H15	경기	TH	3등급	8	1	48	1	2.1	2
16	H16	경기	TH	-	7	2	58	1	1.7	2
17	H17	경기	TH	3등급	8	1	45	1	2.2	3
18	H18	경기	TH	특1등급	18	6	264	4	1.5	7
19	H19	강원	RH	-	15	1	222	2	0.9	7
20	H20	강원	TH	특2등급	4	1	58	3	5.2	3
21	H21	강원	TH	1등급	7	1	51	-	-	-
22	H22	강원	TH	1등급	13	1	85	1	1.2	6
23	H23	강원	TH	1등급	8	1	224	-	-	-

	A	B	C	D	규모		G	H	I	J
					E	F				
24	H24	강원	TH	1등급	9	1	69	1	1.4	6
25	H25	강원	RH	-	9	1	281	3	1.1	2
26	H26	강원	TH	특1등급	15	4	150	1	0.7	3
27	H27	전남	TH	1등급	10	1	42	1	2.4	4
28	H28	전남	TH	특2등급	4	2	55	1	1.8	2
29	H29	경남	FH	-	4	0	35	1	2.9	2
30	H30	부산	TH	1등급	6	1	116	1	0.9	2
31	H31	부산	TH	특1등급	43	5	652	4	0.6	19
32	H32	경남	FH	-	12	2	166	3	1.8	2~4
33	H33	경남	TH	특1등급	12	2	166	1	0.6	1
34	H34	제주	FH	-	4	1	53	1	1.9	1
35	H35	제주	FH	2등급	7	1	94	1	1.1	7
36	H36	충북	TH	1등급	7	1	39	1	2.6	3
37	H37	전북	TH	1등급	10	0	35	1	2.9	3
38	H38	전북	FH	-	8	3	504	3	0.6	2
39	H39	전북	TH	3등급	6	1	32	1	3.1	2
40	H40	전북	TH	3등급	4	1	40	1	2.5	1
41	H41	광주	TH	특1등급	17	3	120	2	1.7	6
42	H42	광주	TH	3등급	7	1	36	-	-	-

Note: A:시설명, B:지역, C:업종분류, D:등급, E:지상층, F:지하층, G:전체객실수, H:장애인객실수, I:장애인객실비율, J:장애인객실설치층수, FH:가족호텔업, TH:관광호텔업, RH:휴양콘도미니엄

실제 조사된 시설의 경우 객실을 200개 이상 보유한 시설이 8개 시설로, 그 외 31개 시설⁴⁾은 객실을 1개만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2개실 이상인 시설은 3개 시설(9.7%)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객실은 해당시설의 저층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피난에 유리 할 수 있으나, 전망에는 불리할 수 있어, 1~2개의 장애인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에서 객실 선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Results of Survey

조사는 조사대상 42개소 숙박시설의 관리자 인터뷰(대면조사)와 이용자(비장애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터넷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Results of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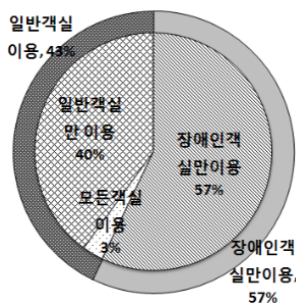
관리자 인터뷰에서는 장애인의 숙박시설 이용 실태와 관리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tatus of Using Rooms for the disabled

장애인의 객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장애인객

4) 장애인객실을 보유하지 않은 3개 시설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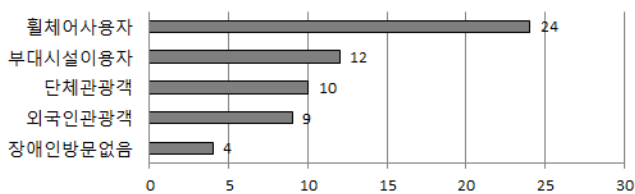
실만 이용 한다는 응답이 20명(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등이 일반객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4명(33.3%),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 모두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명(2.4%), 장애인의 방문이 없었다는 응답이 7명(16.7%)으로 나타났다. 이로 장애인의 일반객실과 장애인객실의 이용이 15명과 20명으로 장애인방문 경험이 있는 35개 숙박시설의 42.9%(15/35)에서 장애인의 일반객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장애인객실의 경우에는 단차 해소나 그 밖의 법적기준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객실 이용에는 편리 할 것으로 보이나 층의 선택, 객실내부 및 화장실내부의 설비에 대한 선택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객실 선택 시 장애인객실이 아닌 일반객실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선택 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 객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숙박객의 장애인객실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장애인객실 설치·유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었다.



[Figure 2] Using rate about room of the disabled

2) Users of Rooms for the disabled

숙박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객실의 주 이용자 유형 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휠체어 사용자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4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객실은 물리적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이용자 유형으로는 부대시설(레스토랑, 수영장 등) 이용자, 단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2명(28.6%), 10명(23.8%), 9명(21.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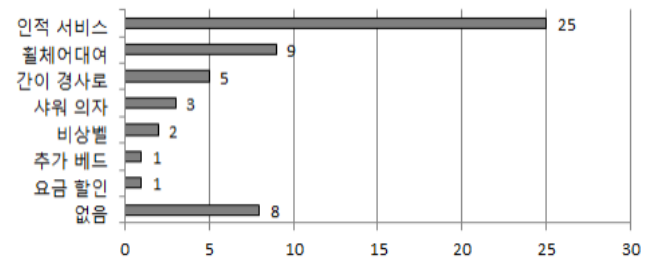


[Figure 3] User rate of using Rooms for the disabled

실제로 휠체어사용자는 장애인객실 이용자의 반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에는 비장애인의 이용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도 나타나고 있다.

3) Service status for the disabled and Needs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5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9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 중 2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간이 경사로, 샤워의자, 비상벨 설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5명(11.9%), 3명(7.1%), 2명(4.8%)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금할인과 추가베드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각 1명(2.4%)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8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19.0%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4] Service status for the disabled

숙박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 등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5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적 서비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16.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객실 면적 확대와 휠체어 대여가 각각 3명(7.1%)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베드 요청이 2명(4.8%), 객실 위치 변경 및 침구세탁, 샤워의자 대여가 각각 1명(2.4%)으로 나타났다.

4) Other Comments

숙박시설 운영자는 장애인객실 설치 시 피난을 위해 저층부에 배치함과 동시에 장애인전용이라는 인식 등으로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좋지 않은 위치(배면 등)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객실이 한정되어 결과적으로 일반객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시설 보다는 전망이 좋은 일반객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숙박객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숙박시설의 객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애인객실은 휠체어사용자 객실로 일반객실과 구분하여 설치함은 물론, 휠체어 실내 사용외의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모든 부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접근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숙박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도 숙박객의 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두는 것 보다 모든 이용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내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2 Results of Questionnaires

비장애인의 유니버설디자인 및 장애인객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편적 디자인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1) Respon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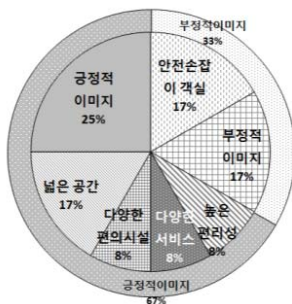
설문에 응해준 응답자는 총 52명으로 연령대는 20대가 22명으로 전체 조사 중 42.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19명(36.5%)으로 설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25명(48.1%)이며 남성은 27(51.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Overview of Respondents

구분	연령					성별		장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	남	유	무
응답자수(명)	22	19	6	3	2	25	27	0	52
비율(%)	42.3	36.5	11.5	5.8	3.8	48.1	51.9	0	100

2) Awareness about Rooms for the disab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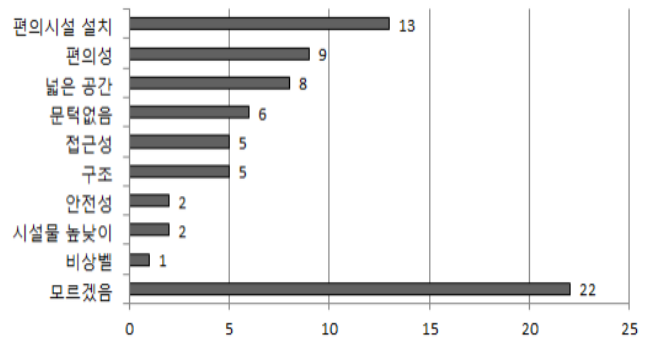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장애인객실에 대하여 들어 본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들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46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88.5%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애인객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13건의 답변이 있었는데, '높은 편리성', '다양한 서비스', '넓은 공간', '긍정적 이미지'라고 7명이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었지만, '안전손잡이 객실', '부정적 이미지'라고 4명이 응답하였다. 편리할 것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장애인객실과 관계가 없거나 사용할 생각이 없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답변이 있었다.



[Figure 5] Awareness about Rooms for the disabled

3) Differences between room for the disabled and us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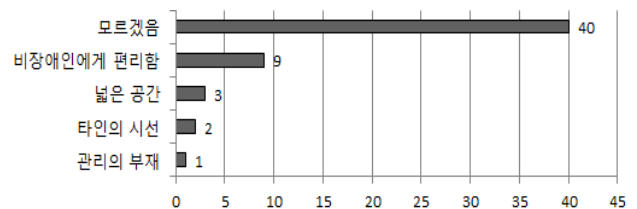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질문에서 '모르겠음'이라고 22명이 응답하여, 전체 조사 대상 중 4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편의시설 설치'이며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25%에 해당하는 13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편의성'에 대한 응답자는 9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17.3%, '넓은 공간'으로 응답한 사람은 8명(15.4%)으로 나타났다.



[Figure 6] Differences between room for the disabled and usual

4) Pros and Cons of Rooms for the disabled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장애인객실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0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7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한 것은 '비장애인에게 편리함'이며 응답자는 전체 17.3%중 9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넓은 공간'에 대한 응답자는 3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5.8%, 단점으로는 '타인의 시선'으로 응답한 사람은 2명(3.8%), '관리의 부재'로 응답한 사람은 1명(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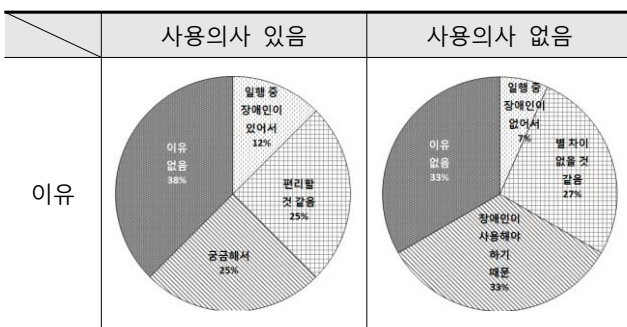
[Figure 7] Pros and Cons of Rooms for the disabled

5) Willingness to Use about Rooms for the disabled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장애인객실을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있음'에 대한 응답자는 22명(42.3%)이며, '없음'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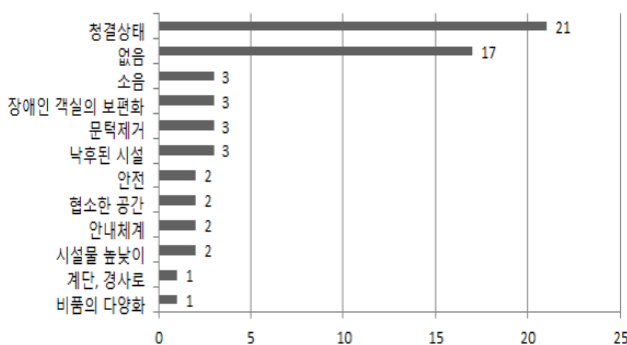
응답자는 30명(57.7%)으로 나타나 '없음'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객실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음'이 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편리할 것 같음'과 '궁금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각각 2명(3.8%)이며, '일행 중 장애인이 있어서'에 대한 응답자는 1명(1.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객실을 이용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의 별도 의견으로는 '장애인이 사용해야하기 때문'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응답이 각각 5명(9.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 차이 없을 것 같음'이 4명(7.7%)이며, '일행 중 장애인이 없어서'가 1명(1.9%)으로 나타났다.

[Table 4] Willingness to Use about Rooms for the disabled



6)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숙박시설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청결상태'에 대한 응답자는 21명이며 전체 응답자 중 40.4%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없음'이며 32.7%에 해당하는 17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다른 대답을 한 응답자는 3명(5.8%) 이하로 청결 상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낙후된 시설', '문턱제거', '소음', '계단-경사로', '시설물 높낮이', '안내체계', '장애인객실의 보편화', '협소한공간', '안전'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



[Figure 8]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Investigation of Current Room Status

실제 국내 42개 숙박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접근에서 공용 공간, 객실 공간에 대한 실태를 알아본다. 또한, 객실내의 각 공간별 물리적 실태에 대해 요소별로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을 요소별로 비교한다.

4.1 Public Space

공용공간에는 매개시설에 해당하는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시설과 공용부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UD화장실), 복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Elements of route

주출입구에서는 무단차접근, 경사로설치, 인적서비스 제공(호출벨 설치)을 통하여 시설내부로 진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규정에 맞춰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주차 사례가 많이 있어, 이 에 대한 지도·교육 및 단속이 필요하다. 안내시설의 경우 안내데스크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설치 된 곳은 42개 조사대상 시설 중 1곳 밖에 없었으며, 다른 곳은 모두 비장애인의 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안내데스크가 있는 홀의 바닥재질은 대리석 등의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전도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재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Public Toilet for all

UD화장실은 주로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2층등 다른 층에 위치하여 안내를 통해 이용하는 시설도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설치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L형 손잡이를 거꾸로 부착하는 등, 적정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Corridors

복도는 객실로의 이동 및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객실로의 진입과 관련하여 객실 전면의 폭은 1200mm이상의 폭이 필요하다⁵⁾. 조사대상 시설 중 객실 전면의 복도 폭은 90%이상(장애인객실 전면 복도 93.9%, 일반객실 전면 복도: 97.1%)이

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7.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1200mm이상으로 나타났다. 복도의 바닥재질로는 카펫, 플라스틱 타일, 석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카펫의 경우, 소음방지와 전도시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카펫 파일(pile)의 길이가 너무 길 경우 보행 및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므로, 용의 길이와 강도에 대해서도 적당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Table 5] Corridor Effective Width

공간	세부	기준	장애인객실	일반객실
복도	객실 전면 복도폭	1200mm 이상	93.9% (31/33)	97.1% (34/35)
		1200mm 미만	6.1% (2/33)	2.9% (1/35)

4.2 Rooms

객실에서는 객실구조(현관, 화장실 및 욕실, 침실)에 따른 분류를 하고, 복도폭, 현관문폭, 현관폭, 화장실문폭, 침대높이, 침대앞 공간, 침대측면공간을 중심으로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을 조사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1) Entrance

현관은 객실로의 진입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주요 요소로는 현관문턱, 단차, 유효폭, 현관 내부폭을 고려해야 한다. 현관은 침실과 욕실 및 화장실로의 접근을 위한 공간과 침실로의 접근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객실 현관에는 장애인객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점자표시판을 병기하고 있다. 또한 초인종과 청각장애이용 초인등을 구분하여 설치한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객실을 장애인객실로 변경하여 설치 시 법 규정에 맞추어 별도의 설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객실의 경우, 무단차 진입이 적절하나, 경사로 설치를 통하여 단차를 해소한 경우가 있다. 일반객실에서 무단차 진입할 경우, 동일 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객실에서도 동일하게 무단차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관단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객실에서 단차해소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여 단차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객실에서 복도와 현관사이의 단차가 없는 31개 시설의 경우에도 현관 문턱이 있는 시설이 10개 시설이 있어, 결국 복도와 객실로 단차 없이 진입 가능한 시설은 21개 시설(53.8%)로 실제 무단차 진입이 가능한 객실 수는 줄어든다.

[Table 6] Status Data of Entrance

공간	세부	기준	장애인객실	일반객실
현관	현관 문턱	있음	43.6%(17/39)	76.2%(32/42)
		없음	56.4%(22/39)	23.8%(10/42)
	현관 단차	있음	20.5% (8/39)	69.0%(29/42)
		없음	79.5%(31/39)	31.0%(13/42)
	현관문 유효폭	800mm이상	87.1%(27/31)	74.3%(26/35)
		800mm미만	12.9% (4/31)	25.7% (9/35)
현관내부 공간폭	1200mm이상	36.7%(11/30)	18.75% (6/32)	
	1200mm미만	63.3%(19/30)	81.25%(26/32)	

[Table 7] Figure of Entrance

	장애인객실	일반객실
현관		
내용	단차없음	단차있음
현관		
내용	경사로설치	단차있음

2) Bathroom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인객실에서 입구단차가 없는 31개 시설 중 문폭이 800mm미만인 경우가 9개 시설이 해당되어 최대 22개 시설 입구에서의 단차와 유효폭을 동시에 만족한다. 따라서, 조사시설 39개 시설 중 22개로 53.4%의 시설이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에 해당된다. 그리고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 모두에서 여닫이문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장애인객실의 경우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미닫이문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안여닫이문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경우, 좁은 내부에서 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객실의 78.6%, 장애인객실에서 47.8%가 안여닫이문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Status of Bathroom

공간	세부	기준	장애인객실	일반객실
화장실 및 욕실	입구단차	있음	20.5% (8/39)	73.8%(31/42)
		없음	79.5%(31/39)	26.2%(11/42)
	화장실문 폭	800mm이상	60.6%(20/33)	13.9% (5/36)
		800mm미만	39.4%(13/33)	86.1%(31/36)
	문형태 ⁶⁾	미닫이	31.6%(12/38)	9.5% (4/42)
		여닫이	65.8%(25/38)	90.5%(38/42)
		안여닫이	47.4%(18/38)	78.6%(33/42)
	내부구조	문없음	2.6% (1/38)	0% (0/42)
		변기+세면대+욕조+샤워	38.5%(15/39)	64.3%(27/42)
		변기+세면대+샤워	61.5%(24/39)	35.7%(15/42)

[Table 9] Figure of Bathroom

	장애인객실	일반객실
입구		
내용	미닫이문, 단차없음	안여닫이문, 단차있음
내부(샤워)		
내용	샤워공간, 손잡이설치	샤워부스설치
내부(욕조)		
내용	욕조설치경우	욕조설치경우

3) Bedroom

침실공간에서는 크게 침대유무와 내부 활동공간, 가구배치에 의한 세부형태로 나뉘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돌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객실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온돌방만을 설치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5개 시설이 있었다. 그리고 침대앞과 측면공간에서 법적

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의 13.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의 (1)활동공간에서 (라)의 내용을 보면,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기준인 1200mm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10개 시설로 나타났다(장애인객실). 따라서 내부 활동공간이 협소하여, 숙박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객실뿐 만아니라 일반객실에서 이동식 가구 사용이 장애인객실이 56.4%, 일반객실이 64.3%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가 이동동선 상에 배치되어 이동 중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장애인객실 46.2%, 일반객실 45.3%로 나타나 객실내의 가구계획시 이동 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밖에 침대높이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경우 18.8%로 나타나, 휠체어사용자의 경우 객실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마감 재질로 장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에 따라 카펫마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Table 10] Status of Bedroom

공간	세부	기준	장애인객실	일반객실
침실	침실내부	더블침대	35.9%(14/39)	23.8%(10/42)
		트윈침대	51.3%(20/39)	64.3%(27/42)
		온돌방	12.8% (5/39)	11.9% (5/42)
	객실난방	공조만	30.8%(12/39)	23.8%(10/42)
		온돌만	64.1%(25/39)	76.2%(32/42)
		공조+온돌	5.1% (2/39)	0% (0/42)
	가구형식	이동식가구	56.4%(22/39)	64.3%(27/42)
		붙박이가구	30.8%(12/39)	26.2%(11/42)
		이동식+붙박이가구	12.8% (5/39)	9.5% (4/42)
	동선내 가구배치	돌출부 있음	53.8%(21/39)	54.8%(23/42)
돌출부 없음		46.2%(18/39)	45.2%(19/42)	
침대앞공간	1200mm이상	41.7%(10/24)	73.9%(17/23)	
	1200mm미만	58.3%(14/24)	26.1% (6/23)	
침대측면공간	1200mm이상	22.2% (2/9)	0% (0/13)	
	1200mm미만	77.8% (7/9)	100%(13/13)	
침대높이	400~450mm	18.8% (3/16)	18.8% (3/16)	
	그외	56.3% (9/16)	75%(12/16)	

[Table 11] Figure of Bedroom

	장애인객실	일반객실
가구		
내용	돌출부있음	돌출부있음
내부		
내용	침대 주변 공간 확보	침대 주변 공간 확보

5. Universal design applicability in rooms

숙박시설 이용자의 인식조사와 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객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한 부정적 인식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2).

[Table 12] Status and Problems of Accommodation Facilities

분류	문제점	내용
인식 및 교육의 부재	장애인객실과 일반객실로 구분지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 관리자에게서 장애인객실 명칭 사용에 대한 거부감 발생 • 장애인객실 이용률 저하에 따른 관리자 거부감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객실 필요성에 대한 무지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객실은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인식의 부재
객실 위치·구조·서비스	장애인객실 설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객실은 위치나 층에 대한 선택지가 낮음(저층부, 배면배치 등)
	객실 구조 (장애인객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객실은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구조로 설치 필요(이용자) •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반영 검토 가능 (관리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의자 등 비치용품 제공필요 • 안내 설비의 UD화 필요
기존 방식의 설계 및 구조	바닥 단차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을 벗고 객실로 들어가는 생활 양식으로 현관 단차 발생 • 온돌방 구조로 침대 없는 객실 발생
	기존객실의 장애인객실로 사용시 문제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객실의 장애인객실로의 개보수에 따른 한계(면적 및 유효폭 확보 필요) • 화장실 편의시설 적정설치 문제 발생
	객실내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와 침대높이에 대한 이해 필요 • 가구로 인한 보행 방해 발생
	안내 및 피난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식의 피난 및 안내 설비 설치 필요 (문자, 음성)

장애인객실의 경우, 장애인전용이라는 인식(이용자설문)이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사용을 저하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객실의 다양한 명칭 사용으로 일반 이용객이나 가족단위의 이용객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게 함과 동시에, 휠체어사용자의 우선적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간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관부에서는 일반객

실과 장애인객실에 대한 현관문턱제거와 단차제거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객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객실에 별도로 문턱제거와 단차제거를 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및 욕실에서, 일반객실에서 화장실 및 욕실의 입구단차가 있는 시설은 31개 시설이며, 그 중 20개 시설(64.5%)에서 장애인객실의 화장실 및 욕실의 입구 단차를 제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9개 시설에서는 일반객실과 장애인객실 모두 무단차 진입이 가능하며, 11개 시설에서는 모든 객실의 화장실입구 단차를 제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난방방식과 상관없이 단차 없이 바닥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형식 및 배치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21개 시설의 객실에서 일반객실과 장애인객실 모두에서 가구로 인한 동선 내 돌출부가 있어, 객실 계획 시에는 반드시 가구계획 및 배치 후의 내부 공간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객실의 명칭 변화 등 인식개선과 일반객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용객에게 객실 선택 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Conclusion

본 연구는 숙박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숙박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비장애인)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42개의 국내 숙박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개선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숙박시설 이용자의 이용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모든 객실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경우에도 별도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객실을 설치하여 객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객실에 대한 명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명칭에 의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한 가지 예로 장애인객실의 명칭과 표기로 인한 이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어 이용률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장애인객실을 배리어프리룸이나 유니버설디자인객실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장애인전용과 같은 이미지보다는, 가족 이용자등 다양한 사용자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명칭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객실의 현관 경사로 설치, 화장실 확장하는 등을 통해 장애인객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일반객실도 정기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

문가 검토 및 계획에 의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와 연속적으로 객실공간의 공간유형분류 및 분석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에 대한 제시하고자 한다.

Acknowledgements: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 Study on Invigorate of Accommodation through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of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in 2016.

References

- Sung, Ki-Chang; Kang, Byoung-Keun; Park, Guang-Jae; Kim, Sang-Woon; Yun, Young-Sam; Kang, Tae-Sung; Kim, In-Young; Lee, Young-Huan, (2010), "Planning Directcons of the Accommodation in Recreational Facilities Considering the Use for the Disabled", Journal Institute of Korea 26(9), pp.3~10.
- 노무라 미도리 저·강병근 외역(2009). 배리어 프리 건축 도시 계획론.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http://knts.kcti.re.kr/>).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2).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원(2015). 장애인 여행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정책건의.
- 田中直人(2012), 建築・都市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その考え方と実践手法

접수 : 2017년 04월 14일
1차 심사완료 : 2017년 05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05월 11일
3인 익명 심사 필